

# 2024년 국가직 9급 한국사(가책형) 해설

## [정답표]

1	2	3	4	5
①	②	③	④	④
6	7	8	9	10
④	③	③	①	②
11	12	13	14	15
③	①	④	③	③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②	④

## 01 - 대가야

1.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낙동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철을 활용하여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

- ① 진흥왕에 의해 멸망하였다.
-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하였다.
- ③ 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누었다.
- ④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정답> ①

'5세기 후반 가야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한 이 나라는 낙동강 유역이라는 지리적 이점과 풍부한 철을 활용하여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가 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5세기 후반'과 '후기 가야 연맹의 맹주'라는 표현 등을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이 나라'는 (경북) 고령의 대가야를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대가야는 신라의 장군이자 정치가인 이사부(?~?)와 화랑 사다함(?~?) 등에 의해 신라 진흥왕 23년인 562년에 멸망하였다. 참고로 전기 가야 연맹의 맹주였던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19년인 532년에 복속되었다.

오답 해설>

②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한 것은 백제 성왕 대(재위 523-554, 제26대)의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성왕 16년인 538년에 수도를 웅진(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사비(지금의 충남 부여)로 옮겼다(사비 시대 개막). 그리고 이때 국호도 남부여로 고쳤다(백제 멸망 시인 660년까지 사용).

③ 지방 행정 구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눈 것은 발해 선왕 대인수 대(재위 818-830, 제10대)의 일이다(발해의 전성기,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으로 불림).

④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남진 정책을 추진한 것은 고구려 장수왕 대(재위 413-491, 제20대)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도읍을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긴 것은 장수왕 15년인 427년의 일이다(평양 천도).

## 02 - 고려의 경제 상황

2.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진대법이라는 구휼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건원중보가 발행되었으나 널리 이용되지 못하였다.
- ③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 ④ 전통적 농업 기술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정답> ②

고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옳은 설명을 묻고 있다.

금속 화폐인 건원중보가 주조된 것은 고려 성종 15년인 996년의 일이다(최초의 철전). 액면가 표시가 없었는데, 종전까지 화폐 대용으로 사용된 포(布), 토산물과 함께 사용되었으나 다점(茶店)이나 주점(酒店), 식미점(食味店) 등에서만 사용되는 등 널리 유통되지는 못하였다.

오답 해설>

- ① 진대법(賑貸法)이라는 구휼 제도를 시행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16년인 194년의 일이다(일종의 빈민 구제책).
- ③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덕대(德大)는 일종의 광산 전문 경영자로 광주(鑛主)와 계약을 맺고 덕대 자신의 재산으로 광업을 경영하였다.
- ④ 전통적 농업 기술을 정리한 『농사직설』이 편찬된 것은 조선 세종 11년인 1429년의 일이다. 정초, 변효문 등이 (왕명을 받아)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종합하여 편찬한 농업 서적이며, 관찬(官撰)으로 간행되었다.

## 03 - 조선책략과 영남만인소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中東)의 형세도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 (중략) ...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

- ① 강화도 조약 체결 이전 조선에 널리 퍼졌다.
- ②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 ③ 이만손 등 영남 유생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 ④ 청에 영선사로 파견된 김윤식에 의해 소개되었다.

정답> ③

'조선이라는 땅덩어리는 실로 아시아의 요충을 차지하고 있어 그 형세가 반드시 다툼을 불러올 것이다'는 내용이 나와 이다. 이어 '조선이 위태로우면 중동(中東)이 형세도 위급해진다. 따라서 러시아가 강토를 공략하려 한다면 반드시 조선이 첫 번째 대상이 될 것이다. ... (중략) ...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조선의 책략은 무엇인가? 오직 중국과 친하며, 일본과 맺고, 미국과 연합함으로써 자강을 도모하는 길뿐이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는 외교 정책을 권장한 『조선책략』\*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도원 김홍집(1842~1896)은 고종 17년인 1880년에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청의 외교관인 황준헌(1848~1905)으로부터 『조선책략』을 얻었고, 이를 고종에게 복명하면서 바쳤다(1880.8).

김홍집에게서 『조선책략』을 받은 고종은 이를 전국에 유포시켰는데 이만손(1811~1891)을 소두(疏頭)로 한 1만여 명의 영남 유생들이 『조선책략』\*의 유포에 반대하여 영남만인소를 올렸다(1881.2, 고종 18)(위정척사 운동의 하나인 1880년대의 개화 반대 운동).

\*『조선책략』: 청의 주일 참사관 황준헌(1848~1905)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은 청의 초대 주일 공사인 하여장(1838~1891)의 구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었다. 당시 청은 이리(伊犁: 중국 위구르·신장 지역) 문제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현실로 다가서자 일본과 손을 잡고 조선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대항하고자 했다. 또 속국으로 여기는 조선에 미국과 일본 등을 끌어들이면 미국, 일본 등이 중국 편에서 함께 간섭해 러시아가 조선을 침략하는 걸 막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으로 황준헌에게 『조선책략』을 작성하게 하였다(조선에게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 정책 권장).

**오답 해설>**

- ① 강화도 조약, 즉 조일 수호 조규가 체결된 것은 고종 13년인 1876년 2월의 일이다(1876.2.27).
- ② 흥선 대원군이 (서울 종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 척화비를 세우는 계기가 된 사건은 고종 8년인 1871년 5월에 발생한 신미양요 때문이다.
- ④ 청에 온건 개화파인 운양 김윤식(1835~1922)이 영선사로 파견된 것은 고종 18년인 1881년 9월의 일이다(~1882.11). 영선사는 중국의 선진 문물(기미국, 신식 무기의 제조와 사용법)을 견학하고 미국과의 수교 문제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해 청에 파견된 사절단이다. 파견된 이듬해인 1882년 6월에 발발한 임오군란의 여파로 조기 귀국하였으나 이를 계기로 기기창(근대적 무기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였다(1883.3).

## 04 -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

4. (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식 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반발하였다.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고 도시 하층민이 여기에 합세하였으나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후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였다. 또 (가)을 체결하여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을 인정받았다.

- ① 한성 조약
- ② 텐진 조약
- ③ 제물포 조약
- ④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

**정답> ④**

'정부의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구식 군인과 도시 하층민이 반발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제대로 봉급을 받지 못한 구식 군인들이 난을 일으키고 도시 하층민이 여기에 합세하였으나 청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후 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조선의 내정에 개입하였다. 또 (가)을 체결하여 조선이 청의 속방임을 명문화하고 청 상인의 내륙 진출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주어진 자료는 조선 고종 19년인 1882년 6월에 발생한 임오군란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7월까지 진행). 이때 청은 봉기의 책임을 물어 흥선 대원군을 납치하여 중국 텐진 보정부에 억류하였다(1885년 8월 귀국). 그리고 같은 해 8월에는 주어진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담은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을 체결하였다. 장정 제4조에서 중국 상인이 양화진을 비롯한 조선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내지 통상권이 최초로 규정되었다.

**오답 해설>**

- ① 한성 조약은 갑신정변을 수습하기 위해 조선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1885.1). 주요 내용은 일본에 사의를 표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었다.
- ② 텐진 조약은 갑신정변을 수습하기 위해 청과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1885.4). 주요 내용은 청과 일 양국 군대가 동시 철수하고, 동시 파병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1894년 동학 농민 운동 시 조선 정부가 청에게 원군을 요청했을 때 일본이 출병하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 ③ 제물포 조약은 임오군란 사후 처리를 위해 조선은 일본이 맺은 조약이다(1882.8). 주된 내용은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죄단을 파견한다는 것이다(각 제4조/제6조). 또 공사관 보호의 명분으로 일본 경비병을 상주시키는 내용도 들어갔다(제5조).

## 05 - 위화도 회군 이후의 사실

5.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 ② 정몽주가 살해되었다.
- ③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하였다.
- ④ 황산 대첩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정답> ④

위화도 회군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다.

이성계(1335~1408)가 위화도 회군을 단행한 것은 고려 우왕 14년인 1388년 5월의 일이다. (전라도 지리산 근방인) 황산에서 이성계가 왜구를 물리친 것은 그 전인 1380년(우왕 6) 9월의 일이다. 황산 대첩은 이성계가 신흥 무인 세력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답 해설>

- ① 송당 조준(1346~1405) 등의 건의로 과전법이 실시된 것은 고려 공양왕 3년인 1391년 5월의 일이다. 과전법에서는 경기 지역의 토지만 지급하였다.
- ② 고려 말의 대표적인 온건 개혁파인 포은 정몽주(1337~1392)가 개경의 선죽교에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이방원(1367~1418)(이후 태종) 세력에게 피살된 것은 공양왕 4년인 1392년 3월의 일이다.
- ③ 한양으로 도읍을 이전한 것은 조선 태조 2년인 1394년 10월의 일이다(한양 천도). 한양은 한수(漢水), 즉 한강의 북쪽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 06 - 위암 장지영

6. 다음의 논설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날을 목 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 ... (중략) ... 천하만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천만 뜻밖에 5개조가 어떻게 제출되었는가. 이 조건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할 조짐을 점차 만들어 낼 것이니 이토[伊藤] 후작의 본의는 어디에 있는가?

- ① 『한성순보』를 창간하였다.
- ② 『한국통사』를 저술하였다.
- ③ 『독사신문』을 발표하였다.
- ④ 『황성신문』의 주필을 역임하였다.

정답> ④

'이 날을 목 놓아 우노라[是日也放聲大哭]. ... (중략) ... 천하만사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많지만, 천만 뜻밖에 5개조가 어떻게 제출되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이 조건은 비단 우리 한국뿐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할 조짐을 점차 만들어 낼 것이니 이토[伊藤] 후작의 본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논설]을 작성한 인물은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강요 당시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위암 장지영(1864~1921)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시일야방성대곡'을 발표한 날은 1905년 11월 20일). 참고로 황성신문은 한서 남궁억(1863~1939)이 국한문 혼용체로 발행하였으며 주 독자층이 양반 유생들이었다(1898~1910).

오답 해설>

- ① 한성순보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으로(근대적 신문의 효시), 박문국에서 관보로 10일에 한 번 한문으로 발행되었다[1883년(고종 20) 10월]. 갑신정변 때 사옥과 활자·인쇄 시설 등이 모두 불에 타버려 부득이 1년 만에 종간되었다. 이후 1886년(고종 23) 1월에 한성주보로 제호를 바꾸어 주간신문으로 다시 발간되었다.
- ② 『한국통사』를 저술한 인물은 백암 박은식(1859~1925)이다(1915.6).
- ③ 단재 신채호(1880~1936)가 대한매일신보에 『독사신문』을 연재한 것은 1908년 8월의 일이다(1908.8~12)(『독사신문』은 미완성 논설). 신채호는 민족을 역사 서술의 중심에 둔 민족주의 사학자이다.

## 07 - 조선 성종 대의 서적(동국여지승람)

7.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에 편찬된 서적으로 옳은 것은?

- 왕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중단되었던 경연을 다시 열었다.  
○ 왕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

- ① 대전통편  
② 동사강목  
③ 동국여지승람  
④ 훈민정음운해

정답> ③

위의 자료에 '왕은 집현전을 계승한 홍문관을 설치하고 중단되었던 경연을 다시 열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아래의 자료에는 '왕은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사림 세력을 등용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왕'은 조선 성종(재위 1469-1494, 제9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3사의 하나로 왕의 정책 자문과 경연을 담당하던 홍문관이 설치된 것은 성종 9년인 1478년의 일이다.

『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된 것은 성종 12년인 1481년의 일이다. 참고로 (각 군현의 위치와 역사, 면적, 인구, 특산물 등 상세한 정보를 담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이 완성된 것은 중종 25년인 1530년의 일이다.

오답 해설>

- ① 법전인 『대전통편』이 편찬된 것은 정조 9년인 1785년의 일이다.  
② 순암 안정복(1721~1791)이 『동사강목』을 지은 것은 정조 2년인 1778년의 일이다(강목체).  
④ 여암 신경준(1712~1781)이 『훈민정음운해』를 지은 것은 영조 26년인 1750년의 일이다. 『훈민정음도해』라고도 한다.

## 08 - 김헌창의 난

8. 밑줄 친 '반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 네 주의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경의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 ㄱ.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 해방 운동 성격을 가졌다.  
ㄴ.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안', 연호를 '경운'이라 하였다.  
ㄷ. 주동자의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어났다.  
ㄹ. 무열왕 직계가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③

'웅천주 도독 헌창이 반란을 일으켜, 무진주·완산주·청주·사벌주 네 주의 도독과 국원경·서원경·금관경의 사신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신의 아래에 예속시키려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신라 헌덕왕 14년인 822년 웅천주(지금의 충남 공주)에서 김헌창(?~822)이 일으킨 '김헌창의 난'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당시 김헌창은 웅천주의 도독이었다.

ㄱ. 천민이 중심이 된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을 가진 것은 고려 신종 원년인 1198년에 일어난 만적의 난의 들 수 있다.

ㄴ. 반란 세력은 국호를 '장안(長安)', 연호를 '경운(慶雲)'이라 하였다. 옳은 설명이다.

ㄷ. 난의 주동자 김헌창은 아버지인 (상대등) 김주원(?~?)이 왕위에 오르지 못함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선덕왕이 사망한 785년의 일). 옳은 설명이다.

ㄹ. 김헌창(?~822)은 태종 무열왕계 후손이다. 따라서 이 난 이후 무열왕계 후손들은 왕위권 다툼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무열왕 직계가 단절된 것은 그 전인 제36대 혜공왕 대(654~780)이며, 이미 제37대 선덕왕 대(재위 780-785)부터 내물왕계 진골 왕실이 제56대 경순왕 대(780~935)까지 이어졌다(혜공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른 선덕왕이 바로 내물왕의 10대손인 김양상, 신라 하대의 첫 왕).

이상에서 옳은 설명은 'ㄴ과 ㄷ'이다.

## 09 - 병자호란 직후의 사실

9. 다음 사건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홍서봉 등이 한(汗)의 글을 받아 되돌아왔는데, 그 글에, "대청국의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였다.

- ① 삼전도비가 세워졌다.
- ② 이괄이 난을 일으켰다.
- ③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 ④ 정봉수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정답> ①

'홍서봉 등이 한(汗)의 글을 받아 되돌아왔는데, 그 글에, 대청국의 황제는 조선의 관리와 백성들에게 알린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짐이 이번에 정벌하러 온 것은 원래 죽이기를 좋아하고 얻기를 탐해서가 아니다. 본래는 늘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대 나라의 군신이 먼저 불화의 단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병자호란 때의 일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636.12~1639.1). 학곡 홍서봉(1572~1645)는 병자호란 때 지천 최명길(1586~1647)과 함께 화의를 주장한 인물이다. 주어진 자료는 청에 항복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 당시 좌의정이었던 홍서봉 등이 인조의 항복 의식을 협의하기 위해 청군 진영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일이다(1637.1.29).

남한산성으로 피신한 인조는 45일간 항전하다 1637년 1월 30일 결국 청 태종에게 굴복하여 삼전도(三田渡, 오늘날의 서울 송파)에서 항복하였다. 청 태종은 귀환하면서 삼전도비를 건립할 것을 명하였다(1637, 인조 15). 원래의 비명은 '삼전도청태종공덕비'이다.

오답 해설>

- ② 이괄의 난이 일어난 것은 조선 인조 2년인 1624년의 일이다. 평안도 병마절도사 겸 부원수 이괄(1587~1624)은 인조반정에서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켰다.
- ③ 인조가 강화도로 피란하려 한 것은 병자년인 1636년(인조 14) 12월의 일이다. 하지만 청군의 진격 속도가 빨라 강화도로 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 ④ 무신 정봉수(1572~1645)가 용골산성에서 항전한 것은 정묘호란 때인 인조 5년(1627)의 일이다. 평안북도 철산에서 의병을 일으켜 용골산성에서 후금의 군대를 물리치고, 포로로 붙잡혔던 수천 명의 동포도 구출하였다.

## 10 - 시기별 군사 조직

10. (가) ~ (라)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다.
- (나) 지방군은 10정으로 조직하였다.
- (다) 친위 부대인 장용영을 설치하였다.
- (라) 중앙군은 2군 6위제로 운영하였다.

- ① (나) → (라) → (가) → (다)
- ② (나) → (라) → (다) → (가)
- ③ (라) → (나) → (가) → (다)
- ④ (라) → (나) → (다) → (가)

정답> ②

(가) 13도 창의군이 (경기도 양주에서) 결성된 것은 1907년 12월의 일이다(1907.12.6)(정미의병). 이때 총병력은 1만여 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해산된 군인 3,000명이 포함되었다(전 병력을 24개 진으로 하는 12도 창의대진소로 편성). 이듬해 1월 서울 진공 작전을 펼쳤다(300명의 선발대가 서울 부근, 즉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격했다가 일본군의 선제공격을 받아 후퇴).

(나) 지방군이 10정으로 조직된 것은 통일 신라이다(685, 신문왕 5). 참고로 중앙군은 9서당으로 편성되었다(687, 신라 신문왕 7).

(다) 왕의 친위 부대인 장용영이 설치된 것은 조선 정조 17년인 1793년의 일이다.

(라) 중앙군이 2군 6위제로 운영된 것은 고려 시대이다. 2군은 국왕의 친위 부대로 응양군과 용호군으로 구성되었다. 응양군은 1령, 용호군은 2령이었는데, 한 령은 천 명으로 구성되었다(2군 6위 총 44령). 6위는 보통 성종 14년인 995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며, 상위의 부대인 2군은 현종 대, 정확하게는 거란군의 침략을 당한 직후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응양군과 용호군의 칭호가 현종 8년(1017)과 현종 9년(1018)에 처음으로 언급].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나)-(라)-(다)-(가)'가 된다.

# 11 -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 결성

11. 밑줄 친 '이 회의'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 장관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방안 등이 결정되었다.

- ①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좌우 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 ③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④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정답> ③

'미국, 영국, 소련 3국의 외무 장관이 모인 이 회의'에서는 한국의 민주주의적 임시 정부 수립과 이를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의 설치, 최대 5년간의 신탁통치 방안 등이 결정되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이 회의'는 당시 소련의 수도인 모스크바에서 열린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회의가 개최된 것은 1945년 12월 16일의 일이다(~12월 26일). 그리고 같은 해 12월 27일에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 결정문이 발표되었다.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줄여서 '건준')가 결성된 것은 8·15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17일의 일이다(위원장 몽양 여운형, 부위원장 민세 안재홍).

오답 해설>

① 유엔 소총회의 의결에 따라 1948년 5월에 5·10 총선거가 실시되었다(1948.5.10). 단 이때 제주(도) 4·3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총선거 결과 전체 의석 200석 중에 제주도 2개구를 제외하고 198개구에서 198명의 제헌 국회 의원이 선출되었다. 제주도는 4·3 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이듬해에 치러졌다.

② 좌우 합작 위원회가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한 것은 1946년 10월의 일이다(1946.10.7).

④ 반민법에 근거하여 반민족 행위 특별 조사 위원회(줄여서 '반민특위')와 특별 재판부, 특별 검찰부가 구성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0월의 일이다(1948.10.23)(국회 의원 10명으로 구성).

# 12 - 익산 미륵사지 석탑

12. 밑줄 친 '가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善因)을 심어 이번 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 원하옵나니, 영원토록 공양하고 다함이 없이 이 선(善)의 근원을 배양하여, 대왕 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며,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게 하소서.

- ① 목탑의 양식을 간직한 석탑이 있다.
- ②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이 있다.
- ③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혜 화상의 탑비가 있다.
- ④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모전석탑이 있다.

정답> ①

'우리 왕후께서는 좌평 사택적덕의 따님으로 지극히 오랜 세월에 선인(善因)을 심어 이번 생에 뛰어난 과보를 받아 만민을 어루만져 기르시고 삼보(三寶)의 동량(棟梁)\*이 되셨기에 능히 가람을 세우시고, 기해년 정월 29일에 사리를 받들어 맞이하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원하옵나니, 영원토록 공양하고 다함이 없이 이 선(善)의 근원을 배양하여, 대왕 폐하의 수명은 산악과 같이 견고하고 치세는 천지와 함께 영구하며, 위로는 정법을 넓히고 아래로는 창생을 교화하게 하소서'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가람', 즉 사찰인 익산 미륵사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639, 백제 무왕 40). 『삼국유사』의 '서동설화'에 따르면 백제 무왕의 비가 신라의 제26대 왕인 진평왕(재위 579-632)의 공주인 선화 공주(?~?)로 되어 있다. 하지만 2009년 1월 익산 미륵사지 석탑 심초에서 백제 무왕(재위 600-641, 제30대)의 왕후가 넣은 사리기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서는 백제 무왕의 왕후가 백제의 귀족 사택적덕(?~?)의 딸(사택 왕후)로 기록되어 있다(즉 주어진 자료는 '익산 미륵사지 서탑 금제 사리봉안기').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목탑 양식의 석탑이다(국보 제 11호).

\*삼보(三寶)란 불자가 귀의해야 한다는 불보, 법보, 승보의 3가지를 가리킨다. 동량(棟梁)은 기둥과 들보로 집안이나 나라를 떠받치는 중대한 일을 맡을 만한 인재를 이르는 말이다. 불교의 승려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문맥상 앞의 뜻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② 대리석으로 만든 10층 석탑으로는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고려의 개성 경천사지 10층 석탑(국보 제86호)과 이의 영향을 받은 조선의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1467, 세조 13)(국보 제2호)이 있다.

③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혜 화상의 탑비[즉 (충남) '보령 성주사지 대낭혜화상탑비']는 9산선문 중 하나인 성주산문을 개창한 낭혜 화상[무염(800~888)]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통일 신라 시대의 탑비이다(국보 제8호). 고운 최치원(857~)이 비석의 글을 지었다('낭혜화상백일보광탑비문').

④ 돌을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 쌓은 모전 석탑은 신라의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이다(634, 신라 선덕 여왕 3)(국보 제30호).

## 13 - 조선 세조 대에 있었던 사실

13. 조선 세조 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 사병을 혁파하였다.
- ㉡. 집현전을 폐지하였다.
- ㉢.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 ㉣.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정답> ④**

조선 세조 대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다.

㉠. 사병을 혁파한 것은 조선 정종 2년인 1400년의 일이다. 사병의 혁파는 사실상 정안군 방원[태종]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한 것은 조선 세조 2년인 1456년의 일이다. 집현전은 이후 성종 9년인 1478년에 언론 기능을 부여받은 홍문관으로 새롭게 계승되었다.

㉢. 『경국대전』을 완성한 것은 조선 성종 16년인 1485년의 일이다(6전 체제 완성). 『경국대전』 편찬은 세조 대부터 시작되었다. 1460년(세조 6) 호전을 시작으로 1466년(세조 12)까지 일단 6전을 완성하였으나 이후 계속 재검토하였다.

㉣. 6조 직계제를 시행한 것은 조선 세조 원년인 1455년의 일이다. 참고로 6조 직계제를 (처음) 실시한 것은 태종 14년인 1414년의 일이다.

이상에서 세조 대(재위 1455-1468, 제7대)에 있었던 사실은, '㉡과 ㉢'이다.

## 14 - 대한민국 임시 정부

14. (가) ~ (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한 사실이다. 이를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가) 한민애국단 창설
- (나) 한국광복군 창설
- (다) 국민대표회의 개최
- (라) 주석·부주석제로 개헌

- ① (가)→(다)→(나)→(라)
- ② (가)→(라)→(다)→(나)
- ③ (다)→(가)→(나)→(라)
- ④ (다)→(나)→(가)→(라)

정답> ③

(가) 한민 애국단이 백범 김구(1876~1949) 주도로 창설된 것은 1931년 10월의 일이다.

(나) 한국 광복군(총사령부)이 중국의 충칭에서 창설된 것은 1940년 9월의 일이다(1940.9.17). 1945년에 이르러 한국 광복군은 국내 정진군을 통한 국내 진입 작전을 추진하였다[미국 전략 정보군(OSS)과 합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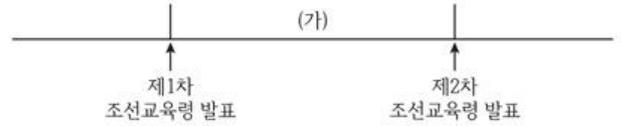
(다) 국민 대표 회의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것은 1923년 2월의 일이다(~같은 해 5월까지 진행). 회의에서 개조파와 창조파가 대립하다 끝내 결렬되었다.

(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주석·부주석제로 개헌한 것은 1944년 4월의 일이다(제5차 개헌). 백범 김구(1876~1949)이 주석, 우사 김규식(1881~1950)이 부주석으로 임명되었다.

이상을 시기 순으로 나열하면 '(다)-(가)-(나)-(라)'가 된다.

## 15 - 2·8 독립 선언

15.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었다.
- ② 근대 교육기관인 육영공원이 설립되었다.
- ③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
- ④ 보안회의 주도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이 일어났다.

정답> ③

제1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때는 1911년 8월의 일이다.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4년으로 정하였다. (3·1 운동의 영향으로) 개정된 제2차 조선 교육령이 발표된 때는 1922년 2월의 일이다. 보통학교의 학제 연한을 일제 본국과 동일하게 6년으로 늘렸다. 일본 도쿄[동경]에서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2·8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은 1919년 2월의 일이다(1919.2.8). 최팔용, 서춘, 백관수 등 재일 도쿄 유학생들이 조직한 (재일본 동경) 조선 청년 독립단이 이를 주도하였다(1918.12). 2·8 독립 선언은 3·1 운동을 촉발시킨 배경 중 하나이다.

오답 해설>

① 경성 제국 대학이 설립된 것은 1924년의 일이다. 이때는 중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2년제 예과를 설치한 것이고, 2년 뒤인 1926년에 본과(3년제 법문학부와 4년제 의학부)를 설치하였다. 총장에는 조선 총독부 정무총감이 취임하였다.

② 근대 교육 기관인 육영 공원이 설립된 것은 1886년 9월의 일이다. 문·무관, 유생 중에 어리고 총명한 자 40명을 뽑아 입학시키고 병커와 길모어 등을 교사로 초빙하여 서양 문자를 가르쳤다(좌원과 우원 두 반으로 편성).

④ 보안회의 주도로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반대 운동이 일어난 것은 1904년 7월의 일이다. 보안회는 전 중추원의관인 성암 송수만(1857~?)과 심상진(?~?)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되었다.

## 16 - 고려 현종 대의 사실(초조대장경 조판)

16. (가)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강조의 군사들이 궁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후와 함께 목 놓아 울며 법왕사로 옮겼다. 잠시 후 황보유의 등이 (가)을/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인을 죽였다.

- ① 윤관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하였다.
- ② 외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안동)로 피난하였다.
- ③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하였다.
- ④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되었다.

정답> ④

'강조의 군사들이 궁문으로 마구 들어오자, 목종이 모면할 수 없음을 깨닫고 태후와 함께 목 놓아 울며 법왕사로 옮겼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잠시 후 황보유의 등이 (가)을/를 받들어 왕위에 올렸다. 강조가 목종을 폐위하여 양국공으로 삼고, 군사를 보내 김치양 부자와 유행간 등 7인을 죽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 목종 12년(1009)에 있었던 (서북면도순검사) 강조(?~1010)의 정변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가)'는 현종(재위 1009-1031, 제8대)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강조의 정변은 이후 거란의 제2차 침입의 빌미가 되었다(1010, 현종 원년).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불교 경전을 집대성한 초조대장경 조판이 시작된 것은 고려 현종 2년인 1011년부터이다(~선종 4년인 1087년까지 조판)(거란의 제2차 침입 시). 초조대장경은 고려 최초의 대장경으로 완료 후 대구 부인사에 보관하였으나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소실되고 말았다(1232, 고종 19).

오답 해설>

- ① 윤관(1040~1111)이 별무반 편성을 건의한 것은 고려 숙종 9년인 1104년의 일이다.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향마군(승병)으로 편성되었다(여진족의 침입 대비). 이후 예종 2년인 1107년에 별무반을 동원하여 여진을 몰아내고 북계 지역에 동북 9성을 쌓았다(여진의 간청과 수성의 어려움으로 1109년에 반환).
- ② 외적, 즉 흥건적이 침입하여 국왕이 복주(안동)로 피난한 것은 고려 공민왕 10년인 1361년의 일이다(흥건적의 제2차 침입 시). 참고로 흥건적의 제1차 침입은 공민왕 8년인 1359년에 있었다.
- ③ 문신 서희(942~998)의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 지역을 획득한 것은 고려 성종 12년인 993년의 일이다(거란의 제1차 침입 시).

## 17 - 신간회 창설

17.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순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등의 격문을 내건 운동이 일어났다.  
(나)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계기로 학생들이 총궐기하는 운동이 일어났다.

- ① 신간회가 창설되었다.
- ② 진단학회가 설립되었다.
- ③ 진주에서 조선 형평사가 창립되었다.
- ④ 대구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정답> ①

(가)에 '순종의 인산일을 기하여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철폐하라!', '일본인 지주에게 소작료를 바치지 말자!' 등의 격문을 내건 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는 1926년 6월에 발생한 6·10 만세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천도교와 사회주의(조선 공산당) 계열, 그리고 학생 단체가 사전에 계획하였지만 중간에 천도교와 사회주의 계열의 지도부가 일제에 발각되어 검거되는 바람에 학생 단체(조선 학생 과학 연구회 등)가 만세 운동을 실행하였다. (나)에는 '광주에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사이에 일어난 충돌을 계기로 학생들이 총궐기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1929년 11월 발생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30.3).

신간회가 서울(경성)에서 '민족 유일당 민족 협동 전선'의 표어 아래 창설된 것은 1927년 2월의 일이다(1927.2.15).

오답 해설>

- ② (청구 학회의 한국사 왜곡에 맞서) 진단 학회가 설립된 것은 1934년 5월의 일이다. 이후 진단 학회는 문헌 고증을 중시하는 실증주의 사학을 정립하는데 기여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진단 학보를 발간하였다.
- ③ 조선 형평사가 경남 진주[진주 청년 회관]에서 창립된 것은 1923년 4월의 일이다(조선 형평사 발기 총회). 형평사를 창립하여 형평 운동을 펼친 이들은 80여 명의 백정 출신들과 사회 운동가들이었다\*.

\*일본에서 유학까지 마친 지식인이었지만 백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한 장지필(1882~1970년대 중반경)과 자신이 백정이라는 이유로 자녀의 입학이 거부당한 이학찬(?~?) 등이 형평사 설립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이에 동조했던 양반 출신 지식인 강상호(1882~1957), 신현수(1893~1961), 천석구(?~?) 등이 단체 설립에 참여하였다.

④ 대구에서 국채 보상 운동이 시작된 것은 1907년 2월의 일이다(~1908.7)(국채 보상 운동 기성회 조직). 대한매일신보, 황성신문, 제국신문 등의 언론이 적극적으로 도왔다.

## 18 - 1930년대의 사실(조선 의용대)

18. 193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비밀결사인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다.
- ② 중국 관내에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 ③ 연해주 지역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설립되었다.
- ④ 서일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단이 조직되었다.

정답> ②

1930년대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다.

중국 관내(關內)\*에서 조선 의용대가 창설된 것은 1938년 10월의 일이다(1938.10.10). 중국 관내인 후베이성 우한의 한커우[한구]\*\*에서 조직되었다.

\*관내(關內)를 관중(關中)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중국 본토 지역을 가리킨다(만주, 즉 동북 3성은 관외). 예전 진(秦)나라 때 수도인 장안 일대 주변에 4개의 관문을 설치한 것에서 연유한다.

\*\*우한은 중국 후베이성[호북성]의 성도(省都)이다(중국어 명칭임). 그리고 우한(武漢)은 우창(武昌), 한커우(漢口), 한양(漢陽)의 세 도시를 함께 일컫는 이름이기도 하다(1949년에 합쳐짐).

오답 해설>

① 비밀 결사인 조선 건국 동맹이 몽양 여운형(1886~1947)의 주도로 국내[서울(경성)]에서 결성된 것은 1944년 8월의 일이다. 8·15 광복 직후 조직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의 기반이 되었다.

③ 연해주 지역(블라디보스토크)에 (일종의 망명 정부인) 대한 광복군 정부가 설립된 것은 1914년 전반기의 일이다(정확한 시기는 불명). 보재 이상설(1870~1917)이 정도령(正都領), 성재 이동휘(1873~1935)가 부도령에 임명되었다.

④ 서일(1881~1921)을 총재로 하는 대한 독립 군단이 조직된 것은 1920년 12월의 일이다(독립군 통합부대). 이후 대한 독립 군단은 1921년 1월 중순에서 3월 중순경에 일본군을 피해 러시아 영토인 자유시로 집결하기 시작하였다(같은 해 6월에 자유시 참변 발생).

# 19 - 고려의 문화유산

19. 밑줄 친 '이 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나라 사신 서공은 그의 저술에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 “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예뻐졌다. 술그릇의 모양은 오이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옆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사발, 꽃병 등도 있었다.”라고 하였다.

-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
- ② 구례 화엄사 각황전
- ③ 예산 수덕사 대웅전
- ④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정답> ②

'송나라 사신 서공은 그의 저술에서 이 나라 자기의 빛깔과 모양에 대해, 도자기의 빛깔이 푸른 것을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부른다. 근래에 와서 만드는 솜씨가 교묘하고 빛깔도 더욱 예뻐졌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어 '술그릇의 모양은 오이와 같은데, 위에 작은 뚜껑이 있고 연꽃이나 옆드린 오리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주발, 접시, 사발, 꽃병 등도 있었다'라고 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고려청자, 특히 상강 청자에 대한 내용으로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 속 밑줄 친 '이 나라'는 고려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 송나라 사신 서공이 고려를 방문하고 귀국한 후 『고려도경』을 지은 것은 고려 인종 1년인 1123년의 일이다. 책의 본래 명칭은 『선화봉사고려도경』(40권)이다.

구례 화엄사 각황전은 조선 중기인 18세기 초에 중건된 건축물이다(1702, 숙종 28)(국보 제67호). 정면 7칸, 측면 5칸이고 중층 팔작지붕 다포집 양식을 취하고 있다. 원래 이름이 장육전(丈六殿)이었으나 숙종이 각황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액하여 각황전이라 하였다. 참고로 구례 화엄사에는 사사자 삼층 석탑, 각황전 앞 석등, 동과 서의 오층 석탑, 원통전 앞 사자탑 등의 유물이 있다.

오답 해설>

- ①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고려 시대의 목조 건축물이다(국보 제15호)(13세기 초 내지 중반경으로 추정).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주심포 양식의 건물로, 맞배지붕을 갖추고 있다.
- ③ 예산 수덕사 대웅전 역시 고려 시대인 충렬왕 대에 지어진 목조 건축물이다(1308, 충렬왕 34)(국보 제49호). 정면 3칸, 측면 4칸의 단층 맞배지붕 주심포 양식을 갖추고 있다. 대웅전에는 석가모니불을 모시고 있으며, 고려 시대 건축물 중 특이하게 백제적 곡선미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수덕사가 삼국 시대 백제 말인 7세기 중엽에 창건되었다.
- ④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도 고려 시대의 목조 건축물이다(국보 제18호)(13세기 초로 추정). 배흘림기둥에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되었다(정면 5칸, 측면 3칸, 단층 팔작지붕, 주심포계 건물). 건물 내부에는 국보 제45호인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무량수전은 부석사의 본전(本殿)으로 신라 문무왕 16년인 676년에 의상 대사가 왕명을 받들어 창건하였다.

## 20 - 조선어 연구회

20. 다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 '가가날'을 제정하였다.
- 기관지인 『한글』을 창간하였다.

- ① 국문연구소
- ② 조선광문회
- ③ 대한자강회
- ④ 조선어연구회

정답> ④

위의 자료에 '가가날을 제정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가가날'은 한글날을 뜻하는 순우리말이자 '한글날'의 처음 이름으로 조선어 연구회가 1926년 11월에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은 기념식에서 정하였다. 이후 1928년 한글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아래의 자료에는 '기관지인 『한글』을 창간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이 역시 조선어 연구회가 1927년 2월부터 한글의 보급과 선전을 위하여 간행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어진 자료에서 설명하는 단체는 조선어 연구회를 가리킴을 알 수 있다(1921.12). 1931년 11월 조선어 학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오답 해설>

- ① 국문 연구소는 대한 제국 정부의 학부 내에 설치된 한글 연구 기관이다(1907.7).
- ② 조선 광문회는 1910년 서울에서 설립된 한국 고전 간행 기관이다(1910.10). 육당 최남선(1890~1957)이 창설하고 백암 박은식(1859~1925)이 관계하였는데, 신민회의 학술 간행 단체이기도 하였다.
- ③ 대한 자강회는 1906년 서울에서 조직된 사회 운동 단체[애국 계몽 단체]이다(1906.4). 대한 자강회 월보를 간행하였으며 전국 각지에 지회를 설치하였다. 1907년 8월 고종 황제의 강제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다 보안법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 이 상 -